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의 칭의관
(Calvin'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41 no.2 (Summer, 1974):41-47

칼빈의 稱義觀

申 福 潤

믿음으로 말미암아 義롭게 된다고 하는 稱義敎理는 宗教改革의 中心敎理였다. 그리고 이 敎理는 다윈 루터는 神學體系的 基礎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는 이 교리를 後代에 宗教改革의 偉大한 遺産으로 남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勿論 이 敎理는 宗教改革者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이 敎理를 올바른 立場으로 부활시켰을 뿐이었다. 이 稱義敎理야말로 그리스도敎와 모든 異敎 思想을 區別지어 주는 특수한 교리인 것이다.

존 칼빈은 그의 모든 知見을 동원하여, 그리스도敎의 이 基本的인 敎理를 論理的으로 또는 體系的으로 解釋하기에 힘썼다. 루터에게서처럼 感情의 부드러움과 強烈함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表現의 명석함에 있어서나, 論證의 効果에 있어서나, 또는 그 適用의 徹底함에 있어서나 칼빈은 조금도 유감된 절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I. 稱義의 意味

칼빈은 처음부터, 자기가 使用하고 자 하는 用語들이 잘못 理解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用語의 올바른 意味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敎理를 철저하게 다루기에 앞서 먼저 그 概念의 意味를 진술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칼빈은 稱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審判에서 義로 간주되고, 이 義 때문에 容納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義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罪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罪人인 限, 혹은 죄인으로 간주되는 한, 어떠한 인간(죄인)도 하나님의 恩寵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¹⁾

다시 말하면 稱義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義를 우리에게 轉嫁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罪人이 아니라 義人인 것처럼 나타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²⁾

따라서 創造主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稱義와 被造物인 人間속에 있는 罪는 서로 排他的인 면을 갖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義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人間은 完全해야 한다. 99퍼센트 뿐만 아니라, 100퍼센트 完全해야 한다.

그러면 稱義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두가지 可能性이 있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첫째로, 人間이 義로워질 수 있는 길은, 全的으로 完全하게 하나님의 律法을 지키는데 있다. 이러한 사람은 行爲로 義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은 墮落後, 全的으로 그 完全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行爲로 자신을 義롭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聖書와 人間自身の 經驗이 立證해주고 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와 反對로 答辯하고자 한다. 곧 우리는 사랑의 모든 義務를 다 하지 않는 限, 이 完全에 결코 到達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결론내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完全한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完

全에 대한 一切의 所望은 그들에게서 斷絶되어 있는 것이다.”³⁾

둘째로 罪人이 義로워질 수 있는 길은, 그가 그리스도의 義로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恩惠로 人類의 罪를 救贖하시기 위하여 人間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義를, 罪人에게 轉嫁하셨다. 여기서 罪人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義롭게 되고, 이 以僞稱義를 통하여 人間은 그리스도의 義를 자신에게 適用하게 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要約하였다.

그러므로 稱義는 저주받은 罪人을 罪責에서 解放시켜, 마치 그의 無罪가 立證된 것처럼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도를 통하여 우리를 義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개인의 無罪를 認定할 뿐만 아니라, 義를 우리에게 轉嫁해 주심으로 無罪宣稱하신다. 그러므로 不義하였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義로 간주되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代贖的 義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嚴格한 審判主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和睦하시는 聖父로 나타나신다.

II. 信仰과 稱義

그리스도의 完全한 義를 轉嫁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和睦케 하는 이

1) In. III, 11.2(이것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3권 제11장 2절을 뜻한다); OS IV, 182, 25~28(이것은 Petrus Barth와 Guilelmus Nieselo이 편집한 *Calvini Opera Selecta* 제4권 182페이지 25~28 행을 뜻한다).

2) In III, 11.2; OS IV, 183, 6~7

3) In, III, 18.8; OS IV, 279, 34~

4) In III, 11, 3; OS IV, 184, 9~14

놀라운 힘을 信仰은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이 신앙은 자체의 固有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혹은 個人의 어떤 特殊한 能力에 속하여 있는 것인가? 칼빈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立場은 절두철기 하나님 恩惠의 行爲인 稱義의 敎理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主張하였다. 칼빈은 거들거들 稱義의 無償의 性格을 강조하였다.

稱義에 하는 힘은 信仰에 속한 것이요 行爲의 價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稱義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慈悲 하심과 그리스도의 功勞에 달려 있는 것으로, 믿음이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를 稱義케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신앙을 그릇에 비유하였다.

그리스도의 恩惠를 찾기 위하여 靈魂의 입을 열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 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 信仰은 그것이 本質적으로 空殼이나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適用할 때 우리를 稱義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돈으로 가득찬 그릇이 사람을 富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III. 그리스도의 義의 轉嫁

칼빈은 以信稱義 敎理의 總의가 되는 關鍵이 고후 5:21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關鍵은 宗教改革者들이 回復시켜 놓은 그리스도敎의 基本的인 原理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代身하여 罪責을 떠맡고 刑罰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思想이야말로 가장 根本的인 眞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義는 福音의 媒介를 통하여 주어진다. 그리고 罪人은 이 義를 받아들임으로 義人으로 간주된다. 이 義가 福音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은, 行爲를 전적으로 稱義의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行爲의 義는 律法의 義가 될 뿐이다.

칼빈은 이 敎理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한층 더 明白히 설명하였다.

“그리스도는 그의 義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가장 놀라운 方法으로 神의 贖罪의 德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使徒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9). 그리스도에 依해서만 우리가 義로 간주된다

(Nos haberi iustos)고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順從이 마치 우리 스스로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容納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義가 그리스도의 順從 안에 머문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암브로스(Ambrose)는 야곱의 祝福에서 나타난 이 義의 實例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야곱은 長子의 特權이 없었으나 향취나는 兄의 옷을 입고 그의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아버지(이삭)는 매우 기뻐하였다(창27:27). 그리하여 야곱은 이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祝福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長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高貴한 純潔 밑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義로 認定되는 것이다.”

IV. 稱義의 法的인 性格

稱義敎理 解釋에 있어서 칼빈이 特別히 強調한 점은 칭의의 法廷的인 性格에 대해서다. 이점에 있어서 그는 멜랑톤(Melanchthon)과 類似한 점을 매우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칼빈의 主張에 依하면 罪人이 義롭게 되는 것은, 義人으로 宣稱 받음으로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죄인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언에 속해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자신 밖에 있는 어떤 勢力에 依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 힘은 罪人: 義의 根據가 되는 그리스도의 贖罪 事役과 犧牲을 뜻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罪人이 그리스도의 義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審判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定罪하였으나 그들 밖에서 그들을 義로 간주해 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稱義의 方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稱義의 法的인 面을 分明하게 主張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審判長이신 하나님께서 被告人의 罪를 용서하시는 法的 行爲를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V. 稱義와 赦免

칼빈은 信仰의 義와 하나님과의 和睦(罪의 容赦에서 오는)을 同一視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容納한 者들을 稱義케 하시되, 그들의 모든 罪가 赦免되어 씻음을 받았을 때, 깨끗함을 받은 사실에 依해서만 義롭게 하시는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義는, 한 말로 해서, “罪의 赦免”라 부를 수 있다.”

5) In III. 18, 9; OS IV, 279, 1~3
6) In III. 11, 7; OS IV, 183, 31~33

7) In III, 11, 23; OS IV, 207, 1~16
Ambrose, On Jacob and the Happy Life II. ii. 9
8) In III, 11, 11; OS IV, 195, 10~15

稱義와 和議는 相互間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稱義와 罪의 容赦는 서로 交換할 수 있는 用語이다. 이 主張을 支援하기 위하여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引用하였다. “이 世上의 聖徒의 義는 罪의 赦宥에서 오는 것이요, 그들의 德이 完全한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¹⁰⁾

칼빈은 또한 버나드(Bernard)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義가 되어서 우리의 罪를 사유하시기 때문에, 그의 慈悲하심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義롭게 된다”¹¹⁾

V. 稱義와 聖化

칼빈은 稱義와 聖化가 直接的으로 關聯되어 있다고 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生活은 發展的인 聖化의 生活이라고 주장하였다. 칼빈 神學에 있어서 信仰 生活의 이 面은 매우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Thomas Aquinas나 Ignatius Loyola와 같이 칼빈은 個人의 聖潔함을 강조하였으며, 그가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惡한 世界와 區別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代議敎理에

대한 주장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아다 그가 그것을 人間이 거룩하게 되는 手段으로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칼빈은 完全主義者는 아니다. 그는 分明히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의 完全은 終末論的인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生活을 完全을 향한 發展으로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目標인 것이다. 그러나 이 目標은 무덤 이쪽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到達할 수 없는 이 目標가, 여기에 接近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努力을 늦추어주는 原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은 루터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義人임과 同時에 罪人¹²⁾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信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義롭다 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罪人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半은 信者요, 半은 不信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轉嫁된 義를 所有함으로 即時 하나님 앞에서는 全的으로 完全해졌지만, 한편 우리 스스로의 立場에서 볼 때 全的으로 不完全한 것이다.

9) In III, 11, 21; OS IV, 204.32(iustitiam fidei esse reconciliationem cum Deo).

In, III, 11, 2와 4를 참조하라.

10) City of God, XIX. 27. In III. 11.22

11) Bernard, Sermons on the Song of Songs xxii. 6, 11(tr. S.J. Eales, Life and Works of St. Bernard IV. 141)

12) simul iustus et peccator

그리스도인의 完全에 관한 문제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거기에 到達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福音的 完全을 그렇게까지 嚴格히 要求할 수 없다. 萬一 그렇게 한다면 이 世上에는 하나도 完全한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敎會에서 除去될 것이다. ...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追跡해야 할 目標을 우리 앞에 세우도록 하자. ... 그러나 이 地上에서 肉體의 잠욕을 쓰고 사는 人間으로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充分히 달릴 수 있는 能力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大部分의 사람들은 매우 나약해서 항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주저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發展的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적은 能力에 따라 前進하며, 우리가 始作한 旅行을 힘써 가도록 努力하자.¹³⁾

그러므로 終末論的으로 理解된 이 完全은 信仰 生活의 倫理的인 目的인 것이다. 이를 向하여 우리는 繼續해서 달려야 한다. 그러면 어느날엔가는 반드시 여기까지 到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目的地는 地上에 있는 것이 아니라 天國에 있는 것이다.

VI. 稱義와 豫定

우리가 칼빈의 稱義敎理를 論할 때는, 반드시 稱義와 豫定과의 關係를

13) In. III. 6,5; OS IV. 150. 6~26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칼빈은, 稱義敎理에서 罪人과 하나님과의 和議이라고 하는 特殊面外에 칭의와 豫定的 抱括的인 면을 關聯지어 놓았다.

칼빈은 稱義에서 하나님의 主權의 行爲를 認定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主權的인 意志로 義롭게 될 자를 永遠 前에 決定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永遠하신 選擇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恩惠의 偉大하심과 그 無償의 은총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조금도 人間의 行爲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意志에 依해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全部는 아니다. 選擇의 敎理는 그 反對部分 곧 遺棄의 神의 行爲에 비추어 볼 때에만, 充分히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기는 一定한 個人에게 있어서 永遠的으로 完成된 것으로, 역시 그들 行爲에 左右된 것이 아니었다.

神的인 것은 積極的인 面에서 뿐만 아니라 消極的인 面에서도 理解되어야 한다. 前進하는 義의 나라 뿐만 아니라, 後退하는 惡의 世界도 이루는 것이다. 이 道德的인 二元論은 두려움이 없고 멸림이 없는 명철하고 대담한 칼빈에 依해서 다루어졌다. 그것은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도, 단순한 理論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한 原理로써, 칼빈은 이것을 조금

도 주저함 없이, 人間 經驗의 모든 神
稜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이것을 두
서는 作定이지만 明白하고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는 이렇게 말하였다. “神은 人間을
創造하시기 전에 틀림없이 各 個人의
運命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神은 그
것을 決定하셨기 때문에 神판의 이것
을 미리 아셨던 것이다(豫知)” 이것
은 칼빈 神學의 最高의 功績이었다¹⁴⁾.

非 칼빈主義者에게 항상 가장 攻擊
을 받아온 것이 바로 칼빈神學의 이
面이요, 이것이 칼빈主義者와 알미니
안主義者, 또는 칼빈主義者와 루터派
사이에 크게 벌어져 있는 점에서 생
겨난 것이었다.

칼빈은 人間을 遺棄者로 다루지 아
니하고, 오히려 被擇者의 하나로 다
루었던 것이다. 칼빈은 豫定敎理를
論할 때, 그 몸서리나고 不吉한 면보
다는 慰安을 주며 격려를 주는 면을
달라야 한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는 人間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定罪
받았다는 사실이 明白해지지 않는 限
被擇者의 數에서 어느 누구를 除外한
다든가, 혹은 그가 이미 버림받은 것
처럼 그를 失望시키는 일은 嚴格히
禁止되어야 한다고 했다.

結 語

칼빈은 稱義敎理에 있어서 두가지

<총회 신학대학 교수>

14) John Tulloch, *Luther and Other Leaders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and London: W. Blackwood & Sons, 1883, pp.219)

른 점이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 첫째는, 이 敎理만이 하나님의
榮光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人間의 協力이
나 人間의 功勞를 내세우는 思想은
어느 것을 莫論하고 하나님의 榮光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 榮光을 돌린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먼저 拒絕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榮光을 保存키 위하여 이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던 칼빈이, 稱義
敎理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非妥協의
이었으며, 모든 榮光은 오직 하나님
에게만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둘째는, 無償의 稱義만이 可憐
한 罪人에게 良心의 平和, 慰安, 安
全感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自身의 功勞에 依存하는 일,
우리 自身의 行爲에 妥當性을 부여하
는 것은 결국 失望을 가져올 뿐이요,
靈的인 疾病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할 때 以信 稱義만이 참
된 幸福의 유일한 根據가 되고 永遠
한 소망의 確실한 基礎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最近의 世俗的 終末論

李 元 高

1. 世俗的 終末論

1960年代의 汎世界的 思潮의 核心
을 樂觀的 未來觀이라고 普遍的 斷定
을 내린다면, 1970年代에 모든 分野
의 지성인들이 느끼는 共通分母는 悲
觀的 終末論이다. 물론 이 말은 科學
的 資料를 가지고 쉽게 證明할 수 있
는 성질의 自明之理致가 아니다. 하
지만 知眼을 가지고 事象의 底面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단 公명할
수 있는 現象이다.

1960年代에도 케산드라(凶事의 豫
言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
날을 至福說의으로 보는 未來學者들
의 數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
이다. 1961년 <베트랑·드·쥬브넬—
Bertrand de Jouvenel>이 중심이 되
어 설립된 「프랑스 未來研究評議會」,
1965년 <벨—Daniel Bell>을 중심한
美國 藝術科學 아카데미의 「2000年研
究委」, 英國의 「向後 30年을 위한 委
員會」등의 “線型計劃”, “模擬實驗”,
“게임 理論”등의 새로운 方法을 통한
未來透視는 대부분의 경우 유토피아의
이었다.

또 60年代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프

롬—Erich Fromm>의 「希望의 革命」,
(드릭카—Peter Drucker)의 「斷絶의
時代」, <칸—Herman Kahn>의 「西
紀 2000年」, <외거—Warren Wager>
의 「人的 域」, <켈브레이스—Kenneth
Galbraith>의 「新産業社會」 등은 보
다 豊饒하고 아름다운 平和境을 그린
작품들이었다.

이들이 말한 樂觀論의 근거는 科學
技術의 경이적 발달이었다. 宇宙의
動力, 磁力, 電力, 核力 등의 相互作
用을 이용하여 科學은 새로운 光學天
文學, 電波天文學 등을 발달시킴으로
서 宇宙時代의 개막을 촉진할 것이며
太陽熱, 地熱發電, 風力發電, 水力の
低落差發電, 原子力利用 등은 에네르
기의 無限供給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왔다. 資料開發에 있어서도 材料工學
의 발달은 인공으로 原子配列을 변경
하여 新材料를 얼마든지 만들 것이고
第 1次産業으로 불려지는 頭腦機械의
발달은 새로운 技術突破를 얼마든지
가능케 함으로써 驚異의 新世界의 出
現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豫測했다.

그러나 쉰 일일까? 이 모든 꿈이
屢氣樓와 같이 사라져 간다. 美國과
같이 「消費美德時代」의 도래로 모든